

구한말 선교사 알렌이 남긴 문서 공개

美 의료선교사 알렌, 조선에 21년간 체류

3869여건 문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금광’ 관련 문서만 300건 이상... 문학~외교 망라

구한말 선교사 알렌이 조선에서 활동하면서 기록한 문서 3800여점이 공개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구한말 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이 조선에서 활동하면서 기록한 3869여건의 문서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연구자 및 일반국민에게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현숙 건양대 교수 연구팀에 3년간 연구비를 지원해 정리한 것이다. 의료 선교사로 알려진 알렌의 활동이 의료 분야를 넘어 문학, 경제, 외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미국인 의료 선교사 알렌은 개항 초기인 1884년 9월부터 1905년 6월까지 약 21년간 조선에 체류했다. 조선에서 의사, 선교사, 경제인, 외교관, 정부 고등인, 고종의 참모, 번역가, 작가 등 여러 직업을 섭렵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관여했다. 이때 생성된 다수의 문서들을 ‘알렌 문서’라고 부른다.

알렌은 주한 미국공사관의 전권공사라는 직위를 역임하기도 했으며, 고종의 최측근으로 정권핵심에 있으면서 주미한국공사관 설치, 춘생문 사건, 아관파천, 독립협회, 하와이 이민 등 한국 근대사의 핵심적인 사건들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알렌 문서’는 알렌이 1924년 뉴욕공립도서관에 기증한 자료를 전량 수집해 일반 대중과 연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



동암금광 전경.



돌미정 금광.

해당 문서를 세로로 쌓으면 2.7m에 달할 정도의 방대한 양이다. 여기에는 주한미국공사관 서류를 비롯한 각종 공문서와 지도, 사진, 신문 기사 등을 비롯해 알렌의 일기와 서신, 메

모, 원고 등의 개인 문서도 포함돼 있다.

알렌이 조선에 들어온 직후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정변 세력에 의해 죽을 뻔한 민영익(명성황후의 조카)을 치료해서 조선 조정의 신임을 얻었다.

이후 경인철도 부설권 및 평안도 운상광산 채굴권을 미국에 주도록 주선했고, 심지어 직접 광산을 목재 조달에 관여하는 등 경제인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DB에서 ‘금광’, ‘광산’을 검색하면 300건이 넘는 문서들이 검색된다. 당시 열강이 금광 채굴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들이다.

1889년에는 영리권 독자들에게 ‘흥부전’ 등의 한국 문화를 알리고, 1893년 시카고만국박람회에 조선 악공들을 데려가 한국 음악을 소개했으며,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논문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관심은 그의 컬렉션에도 그대로 반영돼 음악에 대한 글, 도자기의 목록, 한국과 세계의 고지도, 미술과 문학에 대한 미발간 저술 등이 남았다.

알렌 문서에 포함된 애국가 악보와 각종 초대장, 여권, 사진, 고지도와 고서, 미국공사관의 회계 장부, 알렌 개인의 가계부 등은 소설과 드라마, 연극, 영화 등 새롭고 유익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사양인들이 남긴 한국 관계 문헌들은 한국학 연구에 있어 조선인이 아닌 외국인의 시선으로, 다양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해 왔다”며 “알렌 문서는 역사학, 정치외교학, 의학, 민속학, 문학, 신학, 미술사, 음악사 등 제반 분야에서 근대 전환기 한국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시스

21일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전국 성당 다양한 기념행사 진행

우리나라 첫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1821-1846) 탄생 200주년을 맞아 전국 성당 1750여 곳에서 기념 미사와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1일 한국의 1750여 개 성당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한다”며 “이날 미사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마련한 기도문과 성경 독서에 따라 봉헌된다”고 10일 전했다.

기념미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성당에 올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생중계된다.

성지에서 진행되는 기념행사에 대해 주교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정부의 방역 지침, 당일 날씨에 따라 일정이나 현장 참석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가 희망자들은 교구 공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교구들은 21일을 전후해 김대건 신부의 순교 영성을 본받는 기도와 실천 캠페인, 문화 행사, 김대건 신부 유적 순례 등 기념행사를 계획했다.

서울대교구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기념 거리극 ‘바쁜 밤, 스물두 번째 편지’(9월 10~12일)와 창작 뮤지컬 ‘우리 벗아’(10월 예정) 공연을 계획했다.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종로구 우포도청 터에서 마포구 절두산 순교성지까지 12.7km에 달하는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을 소개했다. 도보 경로와 목상 자료는 상시 제공되고 있다.

대전교구는 당진시와 함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행사’를 14~22일 솔비성지에서 개최한다.

10일 남북 평화를 위한 미사, 20일 기후위기-감염병 종식을 위한 미사, 22일 이주민들을 위한 미사, 14일 김대건 토크콘서트,

17~19일 학술제, 22일 김대건 신부 기념 뮤지컬 ‘마지막 편지’ 등을 진행한다. 행사는 유튜브 대전교구 채널과 김대건 신부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인천교구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김대건 신부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기간으로 정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회년 서한 목상집’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수원교구는 13~21일 교구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김대건 신부님 순교의 길을 따라 걷는 9일 기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제14회 교구 창작성가제 주제를 ‘나는 천주교인이요!’로 정하고, 김대건 신부의 삶과 영성을 표현한 창작곡을 공모한다. 참가 신청은 30일까지며 본선은 11월20일이다.

의정부교구는 청소년사목부 주최로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비대면 신앙 교육을 전개한다. ‘김대건 신부님께 보내는 200년 만의 답장’을 주제로 교구 소속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주교구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미사 및 라파엘호 축복식’을 21일 오전 10시 30분 나비위성지 성당과 김대건 신부 작지처에서 거행한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에는 성당에서 열리는 기념 음악회가 전주교구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9월 11일에는 토크 콘서트가, 10월 12일에는 ‘성 김대건 신부 일행 작지 순례 및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제주교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제주 용수 표착 재현 미사’를 28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 서쪽 서귀포도와 인근 해안에서 봉헌한다.

/뉴스시스

부안군-전주영상위원회, 상호 협력 협약

공동 발전·영상산업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비대면 체결

부안군은 지난 9일 비대면으로 전주영상위원회와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간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전주영상위원회는 2001년 4월, 전주 및 전북 지역의 영화·영상물 제작 유치 지원과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출범했으며 그간 매년 다수의 영화영상물 촬영유치로 도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전주영상위원회는 이번 상호협력 협약을 통해 전례의 경관을 자랑하는 부안을 전라북도의 영상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부안군의 대표적인 영상촬영장인 부안영상테

마파크는 2005년에 개장하여 그동안 대략 140여 편의 각종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 하였고 영상 촬영의 메카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안영상테마파크에서 촬영한 대표적인 영화 및 드라마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킹덤’이 있으며 그 외에도 ‘불멸의 이순신’, ‘동이’, ‘주노’, ‘녹두꽃’ 등이 있다.

이처럼 부안영상테마파크가 인기 있는 이유는 넓은 면적에 양반가와 평민가 등 다양한 종류의 세트장을 철저한 고증을 받고 설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근정전 세트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안영상테마파크에만 설치되어 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촬영을 위해 찾아오는 곳

다. 더구나 그 규모와 정교함은 이미 업계에 입소문이 자자하다.

이번 협약식은 부안의 영화 촬영 명소화는 물론 지역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 기관의 공동 발전과 나아가 영상산업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은 영화·영상제작을 위한 행정지원에 힘쓰며 전주영상위원회는 영화제작·영상촬영 유치 활동과 홍보마케팅, 그리고 영상산업 전문 인력을 활용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주영상위원회와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부안군에서 앞으로 더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부안군이 국내 영상 촬영의 메카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수공예 박람회 참여 작가 모집

12월 9-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핸드메이드 페어'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역 수공예작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12월 9~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핸드메이드 페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전시 참가자 모집은 '작가 전시 및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공예 작가들이 직접 만든 상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전주에 거주하는 수공예 작가(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0명(단체)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작가와 단체에는 행사 전시 부스 1개와 온라인 홍보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9~20일 이틀간 진행된다. 전자우편(eunji@kcc.or.kr)을 통해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김선태 원장은 “이번 전시 지원사업이 지역 수공예인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페어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던 공예인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자체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